

# 심종문 湘西 문학세계가 지닌 생태여성주의의 가능성

李惠任\*

## <目 次>

1. 들어가며: 잃어버린 여성성의 복원
2. 자연과 여성의 동일화
3. 모성성과 순환적 시간관
4. 자연에서 여신으로
5. 나오며: 상생과 치유의 생태여성사회 건설

## 1. 들어가며: 잃어버린 여성성의 복원

심종문(沈從文)<sup>1)</sup>은 1930년대의 마지막 낭만파<sup>2)</sup>로서 그의 문학세계의 바탕에 는 늘 자연과 여성이 자리 잡고 있다.<sup>3)</sup> 그의 문학 속 자연은 신성(divine nature)

\*\* 장안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

- 1) 심종문의 문학 창작은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항전기 1940년대 말기까지 활발하게 지속되었다. 심종문은 일찍이 1930~40년대에 다산작가로 문단에 이름을 알렸다. 『심종문전집』에 수록된 소설 수는 무려 200편에 이르고, 30여 종의 장·단편 소설집을 출간한 바 있다. 이처럼 방대한 소설을 창작한 작가로는 중국현대문학사에 있어서 심종문이 유일하다. 심종문은 동시대 작가들과는 달리 특이한 군대체험과 그의 고향 湘西 지역의 원시성을 주로 다루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대가였다. (王瑤, 『中國新文學史稿』, 上海新文藝出版社, 1954년 273쪽.) 魯迅은 미국 기자 에드거 스노우와의 대화에서 심종문을 '현대문학운동이 시작한 뒤 출현한 가장 뛰어난 작가 중 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凌宇, 『沈從文概論』, 『資料』, 522-523쪽.)
- 2) 俞兆平, 『沈從文: 盧梭式的美學浪漫主義』, 『浪漫主義在中國的四鍾範式』,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1년, 39쪽. 심종문은 당시의 주류 사상이었던 리얼리즘으로써 암울한 사회를 비판하거나 사회적 공론의 장에 머물지 않았고, 오히려 주류문화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인성과 감성에 더욱 가치를 두면서 문학 속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이상세계를 구축해 내었다. 작가는 당시 국가와 당이 주도하는 혁명사상이나 사회운동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과 영성(spirituality)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은 그러한 대자연에 정령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심종문 문학세계의 자연은 늘 그의 고향 湘西<sup>4)</sup>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작가의 낭만주의 감성은 그 문학 창작에 절묘하게 녹아들어가 있다. 심종문은 당시 생태여성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인류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관심, 특히 여성의 삶과 운명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시대를 앞서는 안목과 사상으로 생태여성성에 대한 의식을 작품 속에 은연중에 융해시켜내었던 것이다.

심종문의 철학적 시각에서 자연이 지닌 지혜와 아름다움은 줄곧 인성을 재건하는 척도였다. 그가 작품 속에 묘사한 자연과 가까운 여성의 외모와 품성에 대한 찬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연과 여성은 마치 혈육처럼 “아름답고 건강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인성에 위배되지 않는 삶의 방식”<sup>5)</sup>을 보여주고 있다.

심종문 문학 작품은 자연과 여성이 주요 모티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sup>6)</sup>와의 연관성은 충분하다. 심종문 작품의 여성과 자연은 그의 문학 세계를 공시적·통시적으로 관통하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에서는 생태여성주의 시각에서 심종문 작품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7)</sup>

- 
- 3) 예를 들면, 소설로는 『邊城』, 『長河』, 『鳳子』, 『龍朱』, 『阿黑小史』, 『媚金·豹子與那羊』, 『神巫之愛』, 『山鬼』, 『月下小景』, 『扇陀』, 『三三』, 『三翠』, 『蕭蕭』, 『一個女人』, 『三個男人和一個女人』, 『醫生』, 『旅店』, 『雨後』, 『王嫂』, 『小砦』, 『菜園』 등이, 산문집으로는 『湘西』, 『湘行散記』, 『從文自傳』 등이 있다.
- 4) 小城 소설은 20세기에 하나의 특수한 문학 장르가 되었다. 여기에서 '小城'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현대대작가들의 소설 텍스트 속에 나오는 '小鎮', '市鎮' 혹은 '城鎮'을 의미한다. (耿艷艷, 「20世紀小城小說的生態女性主義解讀——以廢名, 沈從文, 師陀, 林斤瀾和汪曾祺的創作爲例」, 『滄州師範學院學報』, 2015년 第31卷 第3期, 9쪽.)
- 5) 從文, 「從文小說習作選·代序」, 『沈從文文集』 第11卷, 廣州: 花城出版社, 1992년, 45쪽.
- 6) 20세기 중반 이후 출현한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는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를 결합한 용어로서, 프랑스 작가인 프랑수아즈 도본느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도본느는 1972년 '새로운 행동의 시작, 에코페미니즘'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1974년에는 『페미니즘인가 아니면 죽음인가(Lefminism ou la mort)』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생태여성주의를 주요 개념으로 다루었다. 도본느는 사회적 문제와 환경의 문제를 연결하여 생각했다. 그녀는 성차별이 모든 계급제도와 인간 착취의 근원이며, 인간 착취가 자연 착취와 같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부장제의 마지막 단계인 자본주의를 환경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이귀우, 「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조규익 정연정(편), 『한국생태문학 연구총서』, 학고방, 2011년, 297-298쪽.)
- 7) 余愛春, 「女性: 生態的表證——沈從文創作的生態女性主義解讀」, 『教育育人』, 2007.8. / 丁哲, 「自然, 女性——生態女性主義視野中的「長河」」, 『西安社會科學』, 2010 第5期. / 李克儉,

심종문 문학이 생태여성주의와 맞닿아 있다는 점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남성작가가 여성을 사회적 시각에서가 아닌 자연과의 관계에서 신성화, 우월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심종문의 낭만주의 성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작가의 고향이자 천성인 그의 내면적 공간 즉, 湘西 지역의 초나라 무속문화의 여신 숭배 사상의 영향과 그의 개인적 경험, 그리고 그의 문학적 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쟁과 살육, 자연에 대한 파괴를 가져온 현대문명 앞에는 '남성적 혹은 가부장제적'이라는 수식어가 존재한다. 심종문의 고향 湘西 지역은 청나라의 소수민족 통합정책(淸鄉: 소수민족 대학살)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곳이었다.<sup>8)</sup> 군벌부대와 국민당 정권의 폭력적인 분위기와 정치투쟁이 격렬했던 사회, 그리고 상하이 등 대도시 공업문명과 자본주의의 병폐 속에서 남성 중심주의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근대문명의 치유를 위해 심종문이 살았던 시대는 여성성의 복원을 절실히 필요했을 것이다.

심종문이 그의 문학을 통해 구축한 이상향 상서세계(湘西世界)는 여성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그 구성원을 보호하고 치유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평화로운 세계이다. 작가의 성품 역시 어려서부터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고,<sup>9)</sup> 늘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생활했다.<sup>10)</sup> 그리하여 심종문은 그 상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아니마(anima)'<sup>11)</sup>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生態女性主義視角下文學中女性與自然的關係研究-以「邊城」和「一只白蒼鷺」的比較爲例」, 『社會科學前沿』, 2015, 4. / 耿艷艷, 「沈從文與師陀小說的生態女性主義解讀」, 『科教導刊-電子版(下旬)』 2015年 11期. / 耿艷艷, 「20世紀小城小說的生態女性主義解讀——以廢名, 沈從文, 師陀, 林斤瀾和汪曾祺的創作爲例」, 『滄州師範學院學報』, 2015年 3期.

8) 이처럼 군대의 살육 행위에 대한 절망적 체험과 함께 이후 심종문은 어떠한 정치 집단이나 파벌과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군벌이 자행한 만행은 심종문의 생명 의식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폭력과 살해는 그가 평생 '권력 남용을 특별히 혐오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비권력, 비폭력의 사상을 형성하도록 했다.(賀興安, 『沈從文評論』, 成都出版社, 1992년, 11쪽.)

9) 沈從文曾說: “我的氣度得於父親的較小, 得於媽媽的似較多.” (余愛春, 「女性: 生態的表證——沈從文創作的生態女性主義解讀」, 『教書育人』, 2007년, 104쪽.)

10) 심종문이 북경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 沈岳萌을 그리워하며 창작한 작품으로는 「獵野豬的故事」, 「雪」, 「玫瑰與九妹」 등이 있다.

11) 아니마란 융이 집단무의식과 원형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심리학 용어로서 남성의 무의식

이 여성성은 “상호 연관적, 탈중심적, 반위계적, 비폭력적 문화”<sup>12)</sup>를 내포하며, 정치·경제라는 거대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폭력적인 대항을 한다.

심종문은 자본주의와 현대문명적 삶에 의해 타자화되었던 여성과 자연의 가치를 밀접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작품세계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심종문의 湘西 문학세계에 나타난 자연과 여성의 긴밀한 유대는 여성과 자연 간의 친화성을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는 생태여성주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생태여성주의에서는 자연이 여성의 육체와 동일시되어 차별받아 왔다<sup>13)</sup>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여성과 자연의 관계를 유기적인 관점에서 포착하고 있는 심종문의 문학에는 생태여성주의 사유의 단초가 드러난다고 규정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오늘날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억압, 차별, 지배, 폭력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더 이상 이분법일 수 없다는 큰 폭의 생태여성주의 사상을 심종문 문학을 통해 인식시키는 것에 그 의의를 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심종문의 작품을 생태여성주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심종문 연구에 또다른 시각을 더하고자 한다. 이는 심종문 문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어 중국현대문학사 속에 구축된 그의 독창적인 문학세계와 작가로서 지니는 위상을 재조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적인 요소를 말한다. 그것은 태고부터 누적되어 온 여성에 대한 기억들로 모든 남성의 무의식 속에 녹아들어 있다. 용에 의하면 아니마는 인류전체가 겪었던 원시 모계사회의 경험과 관련 있으며 여성의 위대성과 관련이 있다. 모든 남자는 자기 속에 영원한 여성상을 갖고 있다. 그것은 특정 여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명확히 여성화된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이고, 남성의 살아 있는 유기 조직에 새겨져 있는 원시적 기원의 유전적 요소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조상의 모든 경험의 흔적 또는 원형으로서, 말하자면 일찍부터 여성에 의해 만들어졌던 모든 인상의 침전물이다. (켈빈 S. 홀/ 버는 J. 노비드 지음, 김형섭 옮김, 『용 심리학 입문』, 서울: 문예출판사, 2004년, 73-76쪽.)

12)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지음, 손덕수·이난아 옮김,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2000년, 150쪽.

13) 梁錦, 「生態整體性視野中的女性與自然之發展」, 中國優秀碩士學位論文全文數據庫, 2007년.

## 2. 자연과 여성의 동일화

생태여성주의는 생명의 잉태와 양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자연과 여성을 동일시하고 있다. 프랑스 생태여성주의자 도본느는 자연파괴와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주의 사회 구조를 연결시키면서 그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은 남성주의적 억압과 지배구조를 종식시킴으로써 여성이 가지는 잠재력과 초월적 능력이 생태계 위기에서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이 남성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 후에는 몸에서 식량을 생성해내어 다른 생명을 먹여 성장시킨다. 이 여성만의 특징들은 우주의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자라게 하는 자연의 섭리와 본질적으로 같다. 여성의 월경과 임신은 달의 공전 주기와 일치하듯 바다 역시 달이 차고 기움에 따라 밀물과 썰물의 반복적인 모습<sup>14)</sup>을 보인다. 생태여성주의는 자연과 여성은 생명의 잉태와 탄생, 생명을 돌보고 양육하는 존재방식, 모성, 감성, 직관적 능력 등을 고유한 속성으로 가지고 있으며, 여성과 자연의 이러한 속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본래적으로 주어진 것<sup>15)</sup>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지구의 생태 위기는 자연이 주는 근원지에 대해 망각하면서 시작되었다. 인간이 근원지로 삼아야 하는 것은 자연이며, 자연과 동격인 바로 여성이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몸은 생명의 생산자이다. 여성과 자연은 한 몸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곧 자연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된다. 이때 여성의 몸은 단순히 물질로서 환원되는 것이 아닌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여성과 자연의 생명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든다.<sup>16)</sup> 심종문은 작품 속 여성들이 그들의 삶 전체 영역에서 자신들의 창조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자연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다.

14)李克儉, 「生態女性主義視角下文學中女性與自然的關係研究-以「邊城」和「一只白蒼鷺」的比較爲例」, 『社會科學前沿』, 2015년, 93쪽.

15) 고은미 외, 『여성문학의 이해』, 태학사, 2007년, 114-117쪽.

16) 최병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로컬의 문화지형』, 해안, 2010년, 90쪽.

사천에서 호남을 지나 동쪽으로 국도가 하나 있다. 이 국도는 湘西의 변경 근처인 ‘茶垌’이라 불리는 작은 산골 마을까지 이어지는데, 그 마을 시냇가에는 작은 백담이 하나 있고 그 백담 아래에는 집 한 채가 있다. 그 집에는 노인과 어린 소녀, 그리고 누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다. 작은 시냇물이 산을 휘감고 돌아 흘러 약 3리 쯤 내려가면 바로 茶垌의 큰 강물과 만나게 된다……17)

심중문의 문학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의 고향 湘西를 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자연 경관이 갖는 분위기의 특성은 해당 공간에 머물고 있는 인간에게 전이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내면도 특정한 기분에 장악되면 그 기분을 주변 공간으로 전파하기 쉽다. 그만큼 인간의 품성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공간이 주는 분위기와 서로 연관되는 것이다.<sup>18)</sup> 이처럼 인간과 자연은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생명체는 여성(자연)의 몸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는 이 물의 흡수와 발산의 순환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몸에서 순환하는 물, 즉 양수, 체액, 월경 등에 의해 잉태되고 성장한다. 이러한 물의 순환 원리는 여성과 자연의 동질화에 하나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자연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환경’으로 정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배경’으로 정의되고 있다.<sup>19)</sup> 인종, 계급, 여성, 그리고 자연에 대한 억압의 공통된 원인을 서양의 이성 중심주의에서 찾는<sup>20)</sup> 생태여성주의는 폭력적 근대 문명 및 위계적 사회를 반성하고, 억압되었던 자연과 여성의 가치를 복원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심중문 문학 속 여성은 자연의 속성을 닮아 아름답고 관용적이다. 이는 심중문

17) 由四川過湖南去，靠東有一條官路。這官路將近湘西邊境，到了一個地方名爲“茶垌”的小山城時，有一小溪，溪邊有座白色小塔，塔下住了一戶單獨的人家。這人家只一個老人，一個女孩子，一只黃狗。小溪流下去，繞山岨流，約三里使匯入茶垌的大河……「邊城」，《沈從文文集》第6卷，73쪽.

18)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년, 299쪽.

19) 허라금, 「제3의 물결로서의 생태여성주의」, 조규익 정연정(편), 『한국생태문학 연구총서』, 학교방, 2011년, 324쪽.

20) 이귀우, 「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조규익 정연정(편), 『한국생태문학 연구총서』, 학교방, 2011년, 305쪽.

이 여성을 사회적 관점에서가 아닌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온화함, 자비로움, 그리고 이타심은 인류를 기른 대자연의 특성과 가깝다. 심종문은 그의 문학 속에서 자연과 여성을 연결시키면서 남성보다 여성이 자연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에서 여성들은 자연세계의 산과 강물, 화초, 곤충, 물고기 등 모든 짐승들과 연결되는 등 자연물의 이름으로 불린다.<sup>21)</sup>

장편소설 『長河』에서 작가는 현대문명의 한계를 비판하며 타락하고 쇠퇴해져 가는 고향 湘西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일관된 사상에 따라 작품 속에 은연 중에 목가적 정취와 인간사의 조화를 드러냄으로써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자란 어린 소녀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한여름이면 작고 하얀 꽃이 피어 그 향기로운데 모두 취한다. 9월 서리가 내리면 가지 끝에 매달린 과일은 된서리에 물들고, 붉은 빛과 황금 빛에 눈이 부시어 멀리서 보아도 온통 밝게 빛난다.<sup>22)</sup>

강가의 오후 풍경은 매우 맑고 아름다웠다. 붉은 잎과 황금 빛이 반짝이니 사방에 비단 수를 놓은 듯 눈부시게 아름다웠다.<sup>23)</sup>

야오야오는 나무 오르는 것을 싫어한다. …… 그 잠자리채를 잡고 촌살 같이 달려가 잠자리를 잡지만 또 침착하기가 그지 없다. …… 장난꾸러기(야오야오)는 짹째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다.<sup>24)</sup>

소설의 도입부에 묘사된 주인공 야오야오(夭夭) 삶의 자연 환경인 곽발에 곽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장면, 그리고 강가의 모든 만물이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가을

21) 『邊城』의 여주인공 취취(翠翠)라는 이름은 湘西 자연환경의 비취색 푸른빛을 뜻하며, 『長河』의 여주인공 야오야오(夭夭)의 별명은 '장난꾸러기(猴兒精), 얼뜨기(三脚猫)로, 『旅店』에서 여주인공의 이름은 검은 고양이(黑猫), 그리고 『蕭蕭』의 여주인공은 바람소리인 샤오샤오(蕭蕭) 등으로 불린다.

22) 仲夏开花, 花白而小, 香馥醉人. 九月降霜后, 缀系在枝头间的果实, 被严霜侵染, 丹朱明黄, 耀人眼目, 远望但见一片光明. 沈從文, 『長河』, 長河: 岳麓書社, 1992년, 15쪽

23) 河边下午景色特别明丽, 朱叶黄华, 满地如锦如锈. 沈從文, 『長河』, 長河: 岳麓書社, 1992년

24) 夭夭不欢喜上树, ……拿了那个网兜如飞跑去追捕蜻蜓, 又似乎闲适从容之至, ……猴儿精一般快快的爬到树顶上去. 沈從文, 『長河』, 長河: 岳麓書社, 1992년, 16쪽.

의 경치 묘사는 시각적 아름다움과 함께 밝은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를 통해 작가의 시정과 산과 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심중문의 여성들은 모두 푸른 산과 맑은 물을 배경으로 한 그림 같이 아름다운  
湘西에서 생활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대자연의 정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신이성(神異性)을 지닌 야오야오는 푸른 파도가 이는 맑은 물에서 생활하며  
물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운 성격을 지닌 소녀이다. 심중문의 여성은 티끌 하나 없  
이 맑고 깨끗하며, 대자연의 정령인 물이 거침없이 흐르듯이 자유로운 성격의 소  
유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굴밭에서 굴을 따고 있는 야오야오의 활발한 행동에 대  
한 정밀한 묘사는 서로 다른 선율로 흐르는 萝卜溪 마을의 강물처럼 야오야오의  
장난기 있는 성격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는 심중문이 “내 감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인 것은 푸른 파도의 영향이 실로 크다.”<sup>25)</sup>라고 말한 바와 같다.

이러한 자연의 속성을 닮은 여성의 특징은 『邊城』<sup>26)</sup>의 취취에서 가장 두드러  
진다. 취취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녀는 자연의 순수함을 그대로 지닌  
자연과 가까운 성질을 지녔다.

翠翠는 바람과 햇볕 속에서 자랐던 까닭에 피부가 새까맣게 그을렸으  
며,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푸른 산과 푸른 물이었기에 두 눈동자는 수정  
처럼 맑았다. 자연이 그녀를 키우고 교육시켰기에 사람됨이 천진난만하고  
활발했으며, 어떤 때는 한 마리 작은 동물과 같았다. 또 어찌나 착했던지  
깊은 산속에 사는 고라니처럼 지금껏 한 번도 끔찍한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수심에 잠기거나 화를 내본 적도 없었다.<sup>27)</sup>

25) 我感情流动而不凝固，一脉清波给予我的影响实在不小。沈從文，「從文自傳」，《沈從文文集》，  
廣州：花城出版社，1992年。

26) 『邊城』(1934)의 비극적 사랑이야기는 우연한 사건(오해와 죽음)으로 전개되는데, 작가는  
소설의 자연배경인 강물을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재하는 초월적 힘을 지닌 신처럼 묘사  
하고 있다. 1930년대는 소위 중국문학의 수확기로 심중문의 중편소설 『邊城』은 바로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심중문 연구가 司馬長風은 『邊城』이 심중문의 대표작임은 물론  
1930년대 중국문단을 대표할 작품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司馬長風，『中國新文學史』，香  
港：昭明出版社，1987年，37-38쪽.)

27) 翠翠在風日裏長養着，把皮膚變得黑黑的，觸日爲青山綠水，一對眸子清明如水晶。自然既長養  
她且教育她，爲人天真活潑，處處儼然如一只小獸物。人又那麼乖，如山頭黃麂一樣，從想不到

“검은 피부, 맑은 눈동자, 천진무구하면서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인 취취를 자연이 키우고 교육시켰다.” 라고 묘사하는 부분을 통해 작품 속 여성은 자연 그 자체이다. 자연과 통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취취는 湘西의 창조적 주체가 되고 湘西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힘이 된다. 비취색 푸른빛인 湘西의 자연환경이 재현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식의 주체로서 자연과 유기적 관계를 이루는 취취의 건강한 생명력이 투사되었기 때문이다.

심종문의 湘西 문학세계는 자연과 여성의 동질성을 형상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과 자연의 신성함과 위대함, 그리고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여성을 신성화시킨다거나 남성과의 사랑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생명의 활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자연과 소통하는 여성의 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邊城』에서 취취는 마치 뉘송의 사랑을 기다리는 피동적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으나 사실상 텐바오와 뉘송의 구애 속에서 뉘송을 선택한 것은 여성인 취취이었다. 또한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겠으니 집으로 들어와서 뉘송을 기다리라는 순순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룻터에 살면서 뉘송을 기다린다. 어린 소녀인 취취이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인식의 주체자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旅店」에서 새벽의 생명력을 느끼면서 남자 손님을 유혹하는 헤이마오(黑猫), 「蕭蕭」에서는 이미 결혼을 하였음에도 다른 남성과 과감히 사랑을 하는 여인 샤오샤오(蕭蕭), 「雨後」에서는 동굴에서 남자와의 육체적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여성들이 등장한다. 「月下小景」속 작품들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드러낸다. 「女人」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여성이 존경받는 진정한 이유(女人被尊敬的真正理由)’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廟陀」에서는 여주인공 선타는 마을을 괴롭히는 반인반수의 도사를 미와 지혜로써 사랑에 빠지게 하여 제압하기도 한다.

이처럼 심종문이 추구하는 이상적 여성은 신성한 대자연의 정령이자 사랑에 있어서 인식의 주체자인 동시에 생명에 활기를 불어넣는 존재로서 자연과 소통하는 여성의 힘을 보여준다. 심종문은 湘西의 생명력에 발현된 자연적 여성을 통해 변

殘忍事情, 從不發愁, 從不動氣. 「邊城」, 『沈從文文集』第6卷, 75쪽.

방의 숨은 주체로서 원시 여성성을 복원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진정한 욕구에 따라 자연 본능으로서 문화를 형성하는 여성의 주체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심종문 문학 속 자연은 인간에게 터전을 제공하는 관용과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해석된다. 「鳳子」에서 묘사되는 산으로 대표되는 자연 역시 신성을 지닌 존재<sup>28)</sup>로 볼 수 있다. 「鳳子」에서 광산기술자는 산 속 밤나무 숲에서 묘령의 여인을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심종문이 그리는 이상적인 여성은 산이 지니고 있는 신비함, 신성함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갑자기 근처에서 한 여인의 노래 소리가 들렸는데, 노래를 아는 새가 그 맑고 아름다운 목으로 지저귀는 것 같았다. …… 그는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방향으로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남색 치마와 매끈한 긴 다리가 밤나무 숲 끝 관목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의 전신이 드러난 후에 도시인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도 도시인을 바라보게 되자, 곧 노래를 멈추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천신의 딸, 정령, 미의 화신!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은 노루가 낫선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반인반수의 여성은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약간 오므리고 계속 걸어왔다.<sup>29)</sup>

여성의 몸<sup>30)</sup>이 주체가 되어 자연 환경과 일체를 이룬 ‘여인’의 모습은 대자연

28) 고대의 산신은 대부분 여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모두 풍요와 다산을 보여주는 지모신의 인격이었으나 훗날 가부장제에 의해 남편신 옆에 모셔지고, 남성신에게 여성신이 압도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남성 산신으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천지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여성신들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남편을 동반한 부부신의 모습을 갖추거나, 천지창조라는 범우주적인 범위가 아닌 한 지역의 산이나 기후를 관장하는 신으로 본래 가진 능력이 축소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천혜숙, 「여성신화연구1: 대모신 상징과 그 변용」, 『민속학연구』, 안동대민속학연구소, 1991년, 21쪽)

29) 忽然近處一個女子的歌聲，如一隻會唱的鳥，嚶動了它清麗的喉嚨。……他便望到歌聲泛溢的那一方。不過一刻，果然就見到一條藍色的裙同一雙裸露著長長的腿子，在栗林盡頭灌木叢中出現了。再一會兒全身出現後，城市中人望到了她，她也望到了城市中人，就陡然把歌聲止住，站定不動了。一個××天神的女兒，一個精怪，一個模型！那種略感驚訝的神情，仍然同一隻獐鹿見了生人神情一樣。但這個半人半獸的她並不打量逃跑，略遲疑了一下，就抿了嘴仍然走過來了。沈從文，「鳳子」『沈從文文集』第4卷，365쪽.

30) 기호로서의 몸은 구체적인 사회성이나 역사성, 문화적 차이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몸 그 자체가 아니라 ‘살아본 몸’이 지니는 의미에 따라 그 공간의 모양이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겨룡 외,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 한길사, 1999년, 23쪽.)

湘西의 활력으로 발현된다. 이 때 '매끈한 긴 다리'로 표상되는 여성의 몸은 단순히 물리적인 요소가 아닌 향춘을 일구는 역동적인 여성성을 드러낸다. 육체의 생명력을 과감히 발산하는 여성성으로 인해 湘西의 청명한 자연환경이 살아나고 있다. '천신의 딸', '정령', '미의 화신',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은 노루', '반인반수의 그녀' 등 자연과 가까운 성격을 지닌 심종문의 여성은 각 개체가 상호 공존하고 상생하는 생명의 장소로 자연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여진다.<sup>31)</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생태여성주의는 자본주의로 폐쇄해진 자연계와 대도시 사회의 무질서, 소외감 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연과 생명의 원리에 맞추어 살아가자는 이념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생태 윤리 정립에 있어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남성과 다르게 여성의 생리나 생명의 잉태, 양육과 같은 생물학적 조건이 근본적으로 자연 친화력을 지니고 있어 자연과의 교감과 소통이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여성주의로써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를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전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 3. 모성성과 순환적 시간관

여성성의 발현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유발되는 것이 바로 모성성이다. 모성성은 출산을 통한 어머니 역할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양육하고 돌보는 관계로도 정의된다. 즉 부드러움에 기초하는 보살핌의 원형을 '모성'이라고 말한다.<sup>32)</sup> 심종문의 작품은 여성의 모성성을 통해 湘西 특유의 따뜻함과 순박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湘西의 특성은 근대의 남성주의 역사관에 가려진 타자화된 여성성이 발현된 결과이다. 그것은 정치·경제 이데올로기의 이분법적 대립을 해체하고

31) 여성적인 것을 공적인 세계에 통합시킨 결과는 문명의 바람직한 여성화로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 삶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여성의 특성들이 표현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여성해방과 지구상에서의 삶의 개선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조세핀 도노번 지음, 김익두·이월영 역,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8년, 74쪽.)

32) 정순진, 『여성의 현실과 문학』, 푸른사상사, 2001년, 329쪽.

동정과 연민과 같은 비폭력적인 湘西의 서사를 형성한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의 정체성은 약해지더라도 湘西라는 변방 지역은 오히려 그 주변성으로 인해 고유한 정체성이 영속되기도 한다. 이는 근대의 국가중심주의, 탈근대의 세계화로 위기를 겪는 향촌의 근간으로서 모성이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이다.

부계사회보다 모계사회가 먼저 나타났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와(女媧)의 창조신화가 반고(盤古)의 개벽신화보다 먼저였을 가능성이 높다. 여와는 진흙을 빚어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고, 찢린 하늘을 보수하였으며, 땅을 바로잡고, 홍수를 막았다. 또한 맹수를 물리쳐 인간의 삶을 안정시켜 준 대모신이다. 여와는 자신의 분신인 창조물들에 대한 걱정으로 이 모든 일을 하였는데, 반고가 자신의 몸을 해체하여 만물의 근원이 되었지만 그 이후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어머니와 같은 생산성과 대지와와의 관련성에 주목해 볼 때, 여와는 대모신, 대지모신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Gaia) 혹은 곡물의 신인 데메테르에 대비된다.<sup>33)</sup> 이처럼 자연과 여성의 관계는 고대 신화의 모성성의 원형인 대지의 여신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원시 이미지는 원시 생태의 자연을 인류의 어머니로 비유한 것이다.

다시 말해, 모성성을 지닌 생명의 창조자 여와는 여성형상의 원형적 존재인 것이다. 생태여성주의는 이런 관계를 이론화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자연과 여성의 관계를 분석·탐색하여 여성해방운동과 생태보호운동을 적극적으로 선도했다.

심종문이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생각하며 집필한 단편소설 「菜園」은 대지와 어머니에 대한 찬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자연의 어머니를 통해 모성성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채소밭(菜園), 즉 대지와 어머니를 동일시한다. 옥씨 집안의 채소밭이 바로 어머니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채소밭은 옥씨 집안이 지독한 가난으로 부터 벗어나 10년 간 먹고 살게 해주었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에게도 일 년 내내 가장 신선한 배추와 각종 야채들을 제공해주었다. 자연의 풍모를 지닌 채소밭 주인 어머니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이지만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해나가는 가모장적인 모습으로 구현된다. 소박하고 자비로우며 부드럽

33) 정계서, 『이야기동양신화·중국편』, 황금부엉이, 2004년, 49-81쪽.

러운 품성을 지닌 어머니는 달고 맛있는 신선한 채소를 마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채소밭을 가꾼다.

여기에서 '채소밭'은 여성의 대담한 포용력을 상징한다. 채소밭을 통해 어머니로서의 여성성이 얼마나 큰 사랑의 과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채소밭'은 이곳에서 그녀와 관계를 맺은 모든 이들을 살리고 보호하는 모성인 것이다. 이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아들 역시 마음이 착하고 겸손하여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따뜻한 인간미를 드러낸다. 이곳 채소밭과 어머니는 이타적이고 자애로운 모성으로 마을 사람들을 양육하고 자연 만물을 길러낸다. 심종문의 문학 속 어머니는 자연의 대지로 여겨지면서 그 자체가 풍요와 치유의 상징으로 격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廟陀」의 주인공은 최고의 갑부로 비범한 아름다움이 천사와도 같은 여성이다. 마을의 위기를 해결해야 하지만 사람들 모두 자기 목숨이 아까워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여주인공 선타(廟陀)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반인반수의 도사를 무찌르고 재난을 해결하여 마침내 마을과 백성을 구하게 된다. 「一個女人」과 「三翠」에서는 어질고 총명하며 미덕을 갖춘 여성들이 등장한다. 자연에서 성장한 삼취는 자연을 닮은 넓은 아량을 지니고 있으며, 선량하고 낙관적이며 근검절약하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부지런한 여성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남편도 군인이 되어 떠난 후, 홀로 어린 자식을 키우며 중풍에 걸린 양어머니를 돌보지만 아무런 불평 없이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 앞에 닥친 불운에 담담히 맞서면서 모든 일을 질서정연하게 처리한다. 삼취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한 며느리이자 자애롭고 위대한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때 그녀는 과거의 수많은 억울했던 일들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알게 되었다. 그 두렵고 절망적인 노년의 생활이, 이 부인의 머리 속에서 끝없이 펼쳐졌다. 그녀는 자신이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미친 아들을 학대하고, 죽은 쥐를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집에서 미친 아들을 쫓아내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또한 毛弟까지 미친 형 때문에 사람들에게 얻어맞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sup>34)</sup>

소설 「山鬼」에서 묘사되는 어머니 형상은 강인하고 스스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남편이나 자식의 신변을 걱정하고 돌봄의 마음을 보여준다. 「王嫂」에서의 떨어지는 폭탄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머니 왕사오(王嫂) 역시 자신의 분신인 아들의 미래를 걱정한다. 「雨後」의 어머니 역시 아들인 四狗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녀(어머니)는 四狗의 허리를 감싸 안았던 두 손을 풀어 땅 위의 마른 풀을 뜯었다. “너한테 알려줄 게 있는데, 나도 언젠가는 말라버릴 거야.…… 8, 9월이 되면 모든 것은 말라 버릴 거야. 내가 너보다 훨씬 일찍 말라 버릴 거야.”<sup>35)</sup>

“이런 날씨는 방당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씨야. 모르겠니?”……“내가 보기에는 날씨가 참 좋은데, 시원하고 청명하고. 게다가……” “너 폐병에 걸려봐야 속이 시원하겠니?”<sup>36)</sup>

심종문의 문학 속 여성들은 「山鬼」, 「王嫂」, 「雨後」에서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도 남성의 신변과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늘날에도 여성의 지극한 모성성을 강조할 때에 ‘대지의 여신’, ‘어머니의 대지’라는 표현을 통해 여성은 자연화 되어 진다.<sup>37)</sup>

심종문의 여성들은 여와와 같이 공간을 만들고 관리한다. 「月下小景」, 「媚金·豹子·與那羊」, 「山鬼」, 「雨後」 등의 여성들은 밀회의 장소에 나뭇잎이나 건조를 깔고 꽃을 뿌린다. 「山鬼」와 「王嫂」의 어머니, 「小砦」의 桂枝와 干娘 등의 여성들

34) 到这时, 她不但看出她过去的许多的委屈, 而且那未来, 可怕的, 绝望的, 老来的生活, 在这妇人脑中不断的开拓延展了, 她似乎见到在死去以后别人对癡子的虐待, 逼癡子去吃死老鼠的情形, 又似乎见癡子为人把他赶出这家中, 又似乎见毛弟也因了癡子被人打. 「山鬼」『沈從文集』第2卷, 165쪽.

35) 她把围着四狗的腰的两双手放松了, 去采地上的枯草. “我告诉你, 我也总有一天要枯的, ……一切也要枯, 到八月九月, 我总比你们枯得更早.” 「雨後」『沈從文集』第2卷, 91쪽.

36) “这样天气是不准人放荡的天气, 不知道吗?”……“我说天气太好了, 又凉, 又清, 又……” “你要成癆病才快活.” 「雨後」『沈從文集』第2卷, 94쪽.

37) 이수라, 「페미니즘 문학비평 이론」, 고은미 외, 『여성문학의 이해』, 태학사, 2007년, 114쪽.

은 부업을 가꾼다. 심종문의 여성들은 공간과 일체적 친밀도를 갖는다. 그 공간은 남성, 즉 죽음을 향해 뛰어드는 남성과 달아나는 아들을 위해 만든 것이다.<sup>38)</sup>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보살핀다. 자연 또한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생명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근원이다. 그러나 자연과 여성은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과 여성이 생명을 창조하고 살리는 생물학적 본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여성의 몸은 생태계의 순환 질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소우주라 할 수 있다. 이 소우주에서 일어나는 모성적 나눔과 보살핌의 정신을 대 우주 자연으로 옮겨와 실천해나가야 하는 것이 인류의 마지막 과제로 여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배움이고 상호교감이다.

이는 안정감 풍부한 여와식 보호와 치유이자 다음 세대에 대해 걱정하는 모성의 무한한 포용으로 심종문은 모성이 단순한 출산과 양육의 역할을 넘어서 폭넓은 감싸안기를 통해 세상의 상처와 불행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됨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여성의 모성성은 지배 논리가 아닌 상호관계성을, 단순화가 아닌 다양성을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원리가 된다.<sup>39)</sup>

생태계는 모성적 희생과 희생이 거듭되는 순환구조 속에서 상생하는 것으로 모

38) 심종문 湘西 문학세계 속 남성들은 현실로부터의 일탈을 꿈꾸며, 파괴적이고, 죽음과 대면하기를 즐겨한다는 점에서 칼산을 타는 묘족 청년들과 닮았다. 묘족 청년들은 그 용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칼로 된 사다리를 오르고, 네 장의 별경계 달궈진 철판을 걷는다. 이들 上山下山火海라 하며 현실적으로 큰 위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과 맞서는 정신적 용기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신화학의 용어를 빌려 타나토스(Thanatos)적 충동의 발현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를 통해 신을 만나고 신과 함께 합일하게 되는데 일상의 삶은 이를 위한 준비과정이 되거나 배경이 된다. 이는 죽음을 예견하고 쉼을 삼는 「邊城」의 노인이나, 홍수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동아줄을 쪼는 「草繩」의 得貴의 형상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다. 나아가 「嘍囉」와 「在私塾」의 수업을 빼먹고 깊은 강물에서 헤엄치는 어린이들, 「魚」의 피의 혈전을 꿈꾸는 소년들, 그리고 육체적 사랑에 있어 모든 것을 해체하는 남성들의 형상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 현실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오직 신과 한 몸인 자신만이 남게 된다. (강경구, 「湘西——沈從文 소설의 신화적 공간」, 『중국인문과학』 제36집, 2007년, 202-203쪽.)

39) 생태여성주의의 시각은 인류를 비롯한 자연 속의 생명이 협력과 상호보살핌, 사랑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새로운 우주론과 새로운 인류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모든 생명체의 다양성과 그들의 문화적 표현까지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다. (Maria Mies · Vandana Shiva, 손덕수 · 이난아 역,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2000년, 15-16쪽.)

성적 희생은 생명 재생의 조건이 된다. 그러나 이 문명사회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의 짓이 다 마르도록 빨아대며 살면서도 끝없이 요구한다. 그래서 생명 재생이 되는 자연은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 파괴를 일삼는다면 결국은 먹이 사슬의 순환구조가 깨져버릴 것이고, 우주 만물의 반복되는 생명 작용을 유지시키는 동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생태 모성은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자연과 모성, 즉 자연의 순환질서와 어머니의 생장을 주관하는 원리를 일치시키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태 공동체의 평등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 모성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생태파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생태여성주의자들은 모성성이야말로 근대의 중심적 논리가 가져온 폐해를 극복하는 절대적 가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나아가 자연과 여성의 동질화 속에서 모성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자연과 모성의 융화를 통해 생태파괴의 치유와 복원을 추구한다.

심종문은 그의 문학창작을 통해 자연 만물을 보호하는 여성성을 지닌 여성들에게 찬사를 보냄으로써 사람들이 자연과 여성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인류가 여성에게서 자연을 보호하는 정신을 배워 인류 생태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을 알려주고 있다.<sup>40)</sup> 그러나 심종문의 작품은 생태여성주의의 여성성과 모성성이라는 한 면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 반가부장제 의식과 삶과 죽음의 순환 법칙까지 담고 있어 생태여성주의의 확장된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순환적 시간관에서는 시간은 원을 그리고 끊임없이 순환한다. 직선적 시간관에서 모든 사건은 오직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반면, 순환적 시간관에서는 낮과 밤 또는 사계절의 변화처럼 거듭 되풀이 하여 일어난다.<sup>41)</sup> 또한, 이 둥근 것의 순환성은 어떤 목표를 향해 앞으로만 나아가는 직선적인 것(남성)과는 달리, 열림과 닫힘의 유연성과, 함께 숨을 나누어 갖는 생명력의 교류가 가능한 여성성과 모성성을 상징한다.

40) 余愛春, 「女性: 生態的表證-沈從文創作的生態女性主義解讀」, 『教書育人』, 2007년, 105쪽.

41) 金옥동, 『문학 생태를 위하여』, 민음사, 1998년, 71-72쪽.

그것(열정)이 자신의 생명을 연소시킬 때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연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그 열정이 서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더욱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더욱 새로워진 그 생명이야말로 열정을 상징한다.<sup>42)</sup>

심종문 문학은 문명사회의 뾰족하고 딱딱한 직선적 삶의 방식이 아닌, 숨을 나누며 상호교감이 이루어지는 모성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생명과의 상호교감적인 모성적 삶을 추구하는 그의 문학적 상상력은 그의 대표적인 장편 소설 『邊城』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취취의 할아버지가 죽고 난 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되면서 무너진 백담이 다시 세워지고 취취는 뉘송을 기다린다. 육체의 희생을 통해 또 다른 삶의 지속과 생명의 재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다. 「美金·豹子與那羊」과 「月下小景」에서의 남녀의 죽음도 '행복한 죽음=새로운 탄생=영원성'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sup>43)</sup> 이는 인간은 결국 대자연의 일부이며, 죽음은 곧 다른 삶의 지속과 생명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까닭이다. 작가는 소멸과 탄생의 자연의 순환법칙을 자신의 문학 속 여성들을 통해 재발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 4. 자연에서 여신으로

나는 당신의 10년 전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우연'과 '감정'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음을. 나는 또 다른 '우연'의 지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녀에게 가까이 갈 때, 나는 그녀의 미소와 근심 속에서 신을 발견하였다. 그녀와 헤어졌을 때, 모든 자연형식의 빛깔과 광택 속에서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어쩌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믿지 않지만, 단지 '생명'만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sup>44)</sup>

42) 它燃燒了自己生命時, 既可能燃燒別人的生命. 到這種情形下, 只有一件事情可作, 既應它燃燒, 從相互燃燒中有更新生命產生. 那個更新生命才是象徵熱情. 「水雲」, 『沈從文文集』第10卷, 297쪽.

43) 심종문 연구가 向成國는 이러한 행위를 영원한 생명을 위해 현실을 버리는 행위로 해석했다. (向成國, 『沈從文研究』第1輯, 長沙: 湖南大學出版社, 1988년.)

태초의 신은 여신이었다. 자연에서 탄생한 여성성을 지닌 어머니 여신은 자신이 가진 생명 탄생의 힘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인류의 생명을 관장해왔다. 그러나 인간 세계의 질서가 바뀔에 따라 신을 이해하는 방식도 바뀌게 되었다.<sup>45)</sup> 인간들은 가부장적 시선으로 위대한 여신의 신성을 재단하기 시작했고, 여신의 자리에 아버지 신을 앉히기 시작한 것이다. 서구적 합리성과 과학의 패러다임은 자연을 남성애 종속시키고 자연의 모든 주술적 힘과 신이성을 풀어버리려고 했다.

영성적 경향을 강조하는 생태여성주의에서는 이러한 어머니 대지를 치유하고 세계에 다시 주술을 걸고자 노력한다. 영성은 만물에 깃들어 있는 여성적 원리, 여성의 관능, 여성의 신성한 에너지, 여성의 가장 소중한 생명력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생명의 신성함을 재발견하고자 한다.<sup>46)</sup> 심종문의 문학은 사라져버린 여신들 즉, 원시적이고 초월적인 여신의 풍모를 지닌 여성들을 호명해내었다. 이 여성들은 모두 강한 신이성을 지니고 있다.<sup>47)</sup> 이들이 보여주는 신이성은 원시적인 생명력과 풍요로움, 그리고 아름다움을 지닌 대지모신(大地母神)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다.

심종문의 여성들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데에 있어 도덕적 규범이나 현실적 어려움을 초월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sup>48)</sup> 그리고 이들 여성들은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 경제적 능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여성

44) 我已經承認你十年前的意見，即將一切交給‘偶然’和‘情感’為得計。我好象還要另外一種‘偶然’的控制，接近她時，我能從她的微笑和抽皺眉中發現神；離開她時，又能從一切自然形式色澤中發現她。這也許正如你所說，因為我是個對一切無信仰的人，却只信仰‘生命’。沈從文，「水云」『沈從文文集』第10卷，花城出版社，1991年，204쪽.

45) 김화경, 『세계 속의 여성들』, 도원미디어, 2003년, 20쪽.

46) 일부에서는 여신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를 부활 혹은 재창조하려 시도했고, 이때 영성이 여신으로 정의되었다. (Maria Mies · Vandana Shiva, 손덕수 · 이난아 역,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2000년, 29-31쪽.)

47) 대표적으로 「長河」의 야오야오, 「鳳子」에서 봉자라 불리는 여성과 묘령의 여인, 「神巫之愛」의 젊은 병어리 여인, 「山鬼」의 동굴의 여신, 「廟陀」의 여인, 「菜園」의 어머니, 소설은 아니지만 작가의 비평론 「水雲」에서 언급된 ‘생명’으로 상징되는 여인 등이 있다.

48) 심종문은 중원지역의 유가문화권과는 다른 낭만적이고 위험하며 전기성을 띠고 있는 강호 세계에 몸을 담았던 작가였기에 그의 문학 속 주인공들이 추구하는 삶과 사랑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것보다는 비록 짧지만 격정적인 사랑이거나 도덕적 규범과 현실적 어려움을 초월하는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들은 남편, 자식, 애인 등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삶과 죽음을 관조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그것은 생명의 창조자로서의 어머니 여신, 양식 생산을 주재하는 대지의 여신, 삶과 죽음의 순환을 주재하는 계절의 여신이 갖는 특징들이기도 하다.<sup>49)</sup>

심종문 문학 속 주요 배경인 자연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대자연의 정령으로서의 여성의 의미와 연결된다. 작가가 창조해낸 여성형상은 楚나라 무속문화인 여신 숭배 사상, 그리고 작가의 잠재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그 여성들은 자연의 신성을 구현하고 미와 사랑의 여신임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인생의 긍정적인 면, 삶에 대한 사랑을 통해 미와 신을 발견하게 된다. 심종문이 “누군가가 삶의 모든 것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분명 삶의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美)’을 발견할 것이므로 ‘神’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다.”<sup>50)</sup>라고 말했듯이 그가 자연과 여성을 하나로 보는 관점은 곧 미와 신을 동일시했던 그의 문학적 추구와 맥을 함께 한다.

심종문 문학 속 여성은 자연의 관용적이며 아름다운 속성을 지녔다. 이는 심종문이 湘西 문학세계를 창작할 때 여성을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 본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이 지역의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고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신의 의미는 그저 자연일 뿐입니다. 생성되는 모든 현상들은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神)는 항상 합리적이고 관용적이고 아름답습니다.<sup>51)</sup>

49) 안승웅, 「심종문 소설 속 여성형상의 두 가지 경향」, 『국제지역논총』, 2007년, 제4권 2호, 34-39쪽. 심종문 소설 속 여성형상이 여신과 관련이 있다고 할 때, 여성형상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형상이 단순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살아 있는 현실 속의 여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여신의 한 측면 즉, 신성이나 추상적 속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안승웅, 「여신의 탄생과 문학적 변용: 심종문 상서 배경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2010년, 제53호, 94쪽.)

50) 一個人過於愛有生一切時, 必因為在一切有生中發現了“美”, 亦即發現了“神”. 沈從文, 「美與愛·雲南看雲集」, 『沈從文全集』第17卷, 太原: 北岳文藝出版社, 2002년, 359쪽.

51) 我們這地方的神不像基督教那個上帝那麼頑固的. 神的意義在我們這里只是自然, 一切生成的現象, 不是人爲的, 由於他來處置, 他常常是合理的, 寬容的, 美的. 「鳳子」『沈從文文集』第4卷, 347쪽.

..... 나는 지금에서야 신의 존재가 예전 그대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한다. 그 조건은 사람들의 감정이 소박하고 관념이 단순하며 환경이 목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만이 신이 드러나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증가시켜 준다. 그러한 조건이 없으면 신은 곧 사라져 버린다. 내가 방금 본 것은 어떤 신을 경배하고 신께 감사드리는데가 아니라, 완전히 형용할 수 없고 묘사하기 어려운 재미있는 희극의 장이다. 시와 희극 음악의 원천 역시 그 자체이다. 소리, 색, 빛이 교차하여 구름 비단을 짜내면, 신은 그 전체에 존재한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분명히 당신들의 신을 보았다.<sup>52)</sup>

이는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미와 사랑의 여신이 현현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湘西의 신은 바로 자연 그 자체로 범신론과 연결된다. 여기에서 심중문 문학 속의 신은 어머니의 품처럼 인간을 안아주려는 여성적 자연신이지 인간의 죄를 벌하는 무서운 남성 신인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중문이 이처럼 당시 중국현대소설 속에 묘사된 봉건사회의 피해자나 계몽의 대상<sup>53)</sup>인 여성을 신성시하면서 자연의 정령으로 본 것은 그의 고향 湘西에 남아 있는 楚 무속문화인 여신 숭배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楚나라 지역 무당의 降神 활동 중에 지역과 민족의 특색을 가장 많이 지니는 무속은 바로 인신연애이다. 이것은 이미 옛 사람들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던 점이다. 가령 朱熹의 「楚辭集注」에서 말하길 “옛 楚나라 南郢

52) ..... 我才明白神之存在，依然如故。不過它的莊嚴和美麗，是需要某種條件的。這條條件就是人生情感的素朴，觀念的單純，以及環境的牧歌性。神依賴這種條件方能產生，方能增加人生的美麗。缺少了這些條件，神就滅亡。我剛才看到的並不是甚麼敬神謝神，完全是一出好戲。一出不可形容，不可描繪的好戲。是詩和戲劇音樂的源泉，也是它的本身。聲音顏色光影的交錯，織就一片雲錦，神就存在於全體。在那光影中我儼然到了你們那個神。『鳳子』『沈從文文集』第4卷，387쪽.

53) 심중문의 湘西 문학세계 속 여성은 자연의 속성을 닮은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친진한 성향을 지녔고 神性を 지닌 자연의 정령, 즉 여신이라는 현실 초월적 형상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여성 인물의 특징은 당시 중국 문단의 중심에 있었던 좌익작가들이 묘사한 계몽의 대상인 농촌 여성이나 사회개혁을 꿈꾸는 도시의 신여성도 아니었다. 심중문은 동시대 작가들과는 달리 여성을 사회적 시각이 아닌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은 沅江과 湘江 사이에 있었다. 그 풍속은 귀신을 믿고 제사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 제사는 반드시 남자 여자 무당이 악기를 준비하고 노래와 춤으로써 신을 기쁘게 한다. 남방 오랑캐의 천한 풍속에 가사가 상스러우니, 그 두 가지 기운이 상반되는 사람과 귀신 사이에는 방자하게 주색에 빠져 행동이 거칠어지는 폐단이 있었다”고 하였다. ‘인간과 신의 사랑’이라는 무속 특징은 강신의 과정인 정인의 만남과 결혼의 과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강신의 형식은 각각 성별이 다른 사람과 신과의 연애와 결혼으로 표현되며, 남자 신을 부를 때는 목소리가 예쁘고 어여쁜 소녀를 이용하고 여신을 부를 때는 어린 소년을 이용한다.<sup>54)</sup>

심종문의 고향 湘西의 무속문화에는 무당의 기복, 치료, 강신 등이 있는데, 그중 접신의 과정이 인간과 신과의 사랑으로 그려지고 있다. 湘西는 산이 높고 물이 급한 지역으로 자연의 힘이 강한 곳이다. 따라서 자연의 초자연적 힘에 의해 초월적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숲은 상상과 미신적 요소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현상의 근원인 桃園보다 더 깊은 공간, 즉 동굴이 존재한다. 동굴은 湘西 지역의 지리적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크고 작은 동굴들은 변방 지역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곳이었다. 일부 현지의 시골 사람들이 때에 맞추어 식량과 가구를 가지고 동굴 깊은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 초석을 끓여 추출하곤 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찾지 않았다. 대부분의 동굴 속이 기이하고 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 야수와 뱀들이 많았다. 그래서 시골사람이라 해도 위험하여 발길이 뜸했다. 그리하여 전설과 금기들이 생겨났고 그곳을 신과 마귀들이 사는 소굴로 생각했다.<sup>55)</sup>

동굴은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한다.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을 뒤로 하고 좁은 통로를 통해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자궁속의 완전한 세계, 그 최초의 혼돈으로 되돌아가는 통로인 동굴을 신성시하고 꿈꿔왔을 것이다.<sup>56)</sup> 湘西의 동굴은 신의

54) 宋公文, 張君, 『楚國風俗志』, 漢口: 湖北教育出版社, 1995년, 386쪽.

55) 但事實上這種大小洞穴, 在邊地上雖隨處可以發現, 除了一些當地鄉下人, 按時攜帶糧食家具冒險走進洞穴處去煎熬洞硝, 此外就很少有人過問. 正因為大多數同穴內部奇與險平分, 內中且少不了野獸長虫, 既便是鄉下人, 也因為險而裹足, 產生若干傳說和忌諱, 把它看成一個神或魔鬼寄神的窟宅. 「小砦」, 『沈從文集』第7卷, 181쪽.

거주지이자 인간과 신이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의 동굴은 위험한 곳이 아니라 사랑과 죽음을 통한 초월의 공간이 된다. 그의 산문 「湘西」에서도 '낙동(落洞)'이라는 초나라 원시신앙 문화가 묘사되고 있다. 낙동이란 여성이 동굴의 신과 사랑하게 되어 죽어가는 것을 말한다.

모든 낙동(落洞)한 여인은 죽을 때가 되면 여인은 동굴의 신이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부하를 파견하였거나, 혹은 동굴의 신이 직접 새옷을 갈아입고 백마를 타고 자신을 보러 왔다고 느낀다. 그녀의 귀에는 피리와 북의 연주 음악이 들리며, 눈이 빛나고 얼굴이 붉어지며, 가끔씩 몸에서 기이한 향기가 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웃으며 죽어가는 것이다.<sup>57)</sup>

「媚金·豹子與那羊」에서 미금과 표자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 보석동에서 만날 약속을 한다. 그러나 미금과 표자는 동굴 속에서 함께 죽음으로써 사랑을 완성하고 인간을 초월하여 전설이 된다.<sup>58)</sup> 「三個男人和一個女人」와 「醫生」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이 죽자 무덤을 파서 시체를 훔쳐다 동굴로 옮겨오는데, 여기서도 동굴은 사랑과 죽음을 초월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山鬼」에서는 동굴의 여신과 사랑을 나누는 소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산신에게 접신된 毛第의 형은 동굴 속에서 여신과 사랑을 나누며 물과 과일만으로 며칠을 지낸다. 동굴의 공간이 갖는 이러한 특징과 관련하여 湘西 지역에는 낙동이라는 기이한 정신감응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神巫之愛」에서는 주인공 남자 무당(神巫)이 마을 여성들의 우상이 되면서 모든 여성들이 그와의 사랑을 원한다. 이 남자 무당이 한 마을에서 북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른 후 마을의 젊은 여성들에게 각자의 희망을 묻자 모두들 그와 하룻밤을 지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마지막 여성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그 무당을 바라보

56) 이경재, 『신화해석학』, 다산글방, 2002년, 39-42쪽.

57) 凡屬落洞的女子, ……死時女子必覺得洞神已派人前來迎接她, 或覺得洞神親自換了新衣騎了白馬來接她, 耳中有簫鼓競奏, 眼睛發光, 臉色發紅, 間或在肉體上放散一種奇異香味, 含笑死去. 「鳳凰」『沈從文文集』第9卷, 405-406쪽.

58) 不过是当年的洞供媚金, 豹子两人做新房, 如今变成圣地罢了. 「媚金·豹子·與那羊」『沈從文文集』第2卷, 395쪽.

기만 한다. 이 여성은 눈으로 신무에게 “나를 따라 가자, 그대 신의 종이여, 내가 바로 신이니라.(跟着我來吧, 你是神之僕從, 我就是神)”라고 이야기한다. 湘西의 여성들은 격리된 산속에 살다보니 원시적인 성격이 농후하고 신과의 교류도 가능한 여신들이었던 것이다.

심종문의 湘西 문학세계 속 여성들은 절대적 신의 존재처럼 남성에게 불가항력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대자연의 정령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여성은 미와 사랑의 여신으로 형상화되었으며, 남성에게 있어 여신과 같은 숭배의 대상<sup>59)</sup>이 되기 까지도 한다. 또한 남성은 여성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종문의 여성들은 신화를 잃어버린 시대에 작가가 창조한 문학 속 미와 사랑의 여신이었다. 다시 말해 미와 사랑의 화신인 취취와 봉자, 야오야오 등의 여성형상 창조는 현대문명의 병폐를 치료할 미와 사랑의 여신이 발현<sup>60)</sup>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가는 문학 속에서 이러한 초월적 여신을 통해 모든 만물이 지닌 생명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가치를 구현시킴으로써 현대문명과 실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날로 타락해가는 현실세계를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했다.

## 5. 나오며: 상생과 치유의 생태여성사회 건설

본 연구는 심종문의 湘西 문학세계에 나타난 자연과 여성간의 긴밀한 유대에 주목하여 그의 문학이 지닌 생태여성주의의 가능성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심종문 문학은 총체성의 거대 서사와 근대성의 중심적 논리를 거부하고 그 내부에 억압된 가치들, 즉 타자성, 이질성, 지역성, 소수성과 같은 주변적 가치들을 불러내었다. 여성을 자연과 동일시하여 신성시하고 우월화시켜 초월적 여신으로 본 것은, 이에 대한 심종문의 문학적 응답이었을 것이다. 근대의 부정

59) 李光輝, 「沈從文女性崇拜的心理探微」, 『殷都學刊』, 2008년 참조.

60) 안승웅, 「여신의 탄생과 문학적 변용: 심종문 상서 배경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2010년, 제53호, 112쪽.

적인 삶의 태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이 바로 여성과 자연이 가지는 포용과 사랑의 정신인 까닭이다.

생태여성주의에서 말하는 가부장제란 단순히 남성 중심주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형태의 권력과 이데올로기라는 큰 폭의 의미로 해석된다. 생태여성주의는 남성의 여성 지배와 인간의 자연 파괴를 동일시하면서 성별, 인종, 소수민족, 계급차별 등의 불평등한 의식 구조에서 비롯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비인도적 행위에까지 맞서는 것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킨 것이다.

생태여성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상호 지속 가능한 생태사회를 이룩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사회 빈곤층, 장애인, 소수민족 등 사회 약자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지니는 일 자체가 생태여성주의의 한 가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태여성주의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심종문 문학은 여성은 그들이 지닌 생물학적 본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여성적인 힘에 대한 자기 긍정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여성의 힘을 원시적 자연성에서 찾고 있다. 인간은 야성의 자연을 지배하기 위하여 자연의 야성을 인간이 다스려야 할 것으로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명사회는 야성의 인간에게도 야만이라는 이름을 붙여 타자화시켰다. 심종문은 이 같은 왜곡된 현상이 자연스러운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인위적인 제도와 관습이 개입하기 이전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진 양성이었으며, 원시적인 생명의 건강성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음을 문학을 통해 구현하였다.

심종문은 자신의 작품에 늘 자연의 어머니에게 기대는 심정을 표현했다. 그의 문학창작에서 자연과 여성은 대자연 그 자체로 자연에 영혼이 주입되어 완성된 정령의 여신들이었다. 또한, 작가는 보살핌과 치유의 모성적 삶의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생태회복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가는 폭력적 극대 문명과 위계적 사회를 비판하고, 억압되었던 자연과 여성의 가치를 복원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자연과 인간이 유기적 관계로서 상생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

던 것이다.

생태여성주의는 수십 년의 연구와 시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여성비하와 자연경시 사이의 관계성을 모색하고, 가부장제와 이원화 관점으로 여성과 자연을 억압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나아가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간에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관점으로 이를 위해서 여성성의 회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주의 사상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철학, 과학, 경제학, 심리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발전해 나가게 된다. 오늘날 생태여성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생태여성주의 관련 문학창작 역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당시 생태문학 비평시대에 살지 않았던 심종문이 이처럼 수준 높은 생태여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니 시대를 앞서가는 그의 예리한 안목과 사상에 필자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 생태위기에 주목하여 인류사회와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제기한다. 그것은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조화와 상생, 생태적 원리로 요약된다. 여기에서 여성성은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된다. 근대문명의 이분법적 세계관이나 가부장제 남성 중심주의를 뛰어넘은 심종문의 작품에는 생태여성주의에서 지향하는 생태여성세계가 잘 구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을 지배해 온 인간으로서, 여성성을 억압해온 남성성으로서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 본 후에야 가부장적인 권력 남성이 주체가 되어 왜곡해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은 각각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분리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인간(남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연(여성)에 대한 억압이나 착취가 결국은 착취의 대상뿐만 아니라 착취하는 인간(남성)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에 대한 유기체적 인식, 통합적인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성성과 모성성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더욱 넓은 의식을 품고 있는 생태여성주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억압과 지배와 폭력이 사라지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맞서 균형과 조화, 상생과 치유의 생

태여성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일종의 대안 사회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沈從文의 문학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조화로운 생태여성세계를 되찾아 나가는 일이 본 연구의 의미이며 그의 문학이 이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일 것이다. 심종문이 추구하는 범우주적 자연주의 관점과 초월적 여성성, 현대사회에서 죽어버린 고대사회의 여신 숭배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그의 문학 속에 내재해 있는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집중된 조명은 오늘날까지 그의 문학이 지닌 의미를 되새겨 보고 그의 문학세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沈從文, 『沈從文文集』 全12卷, 廣州: 花城出版社, 1992.
- 沈從文, 『沈從文全集』, 太原: 北岳文藝出版社, 2002.
- 沈從文, 『長河』, 長河: 岳麓書社, 1992.
- 沈從文 『從文自傳』,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 賀興安, 『沈從文評論』, 成都出版社, 1992. p.11.
- 糜華菱, 『沈從文生年表』, 太原: 北岳文藝出版社, 1999.
- 金介甫, 『沈從文論』, 北京: 時事出版社, 1990.
- 凌宇·邵華強編, 『沈從文文集』, 廣東: 花城出版社, 1991.
- 凌宇, 「沈從文概論」, 『資料』, 1990.
- 司馬長風, 『中國新文學史』, 香港: 昭明出版社, 1987.
- 宋公文, 張君, 『楚國風俗志』, 漢口: 湖北教育出版社, 1995.
- 王瑤, 『中國新文學史稿』, 上海新文藝出版社, 1954.
- 俞兆平, 『浪漫主義在中國的四鍾範式』,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1.
- 丁哲, 「自然·女性-生態女性主義視野中的《長河》」, 『西安社會科學』 2010, 第5期.
- 李光輝, 「沈從文女性崇拜的心理探微」, 『殷都學刊』, 2008. 3.
- 李克儉, 「生態女性主義視角下文學中女性與自然的關係研究-以《邊城》和《一只白蒼鷺》的比較為例」, 『社會科學前沿』, 2015, 4.
- 梁錦, 「生態整體性視野中的女性與自然之發展」, 中國優秀碩士學位論文全文數據庫, 2007.
- 耿艷艷, 「20世紀小城小說的生態女性主義解讀-以廢名, 沈從文, 師陀, 林斤瀾和汪曾祺的

- 創作為例」, 『滄州師範學院學報』, 第31卷 第3期, 2015.
- 耿艷艷, 「沈從文與師陀小說的生態女性主義解讀」, 『科教導刊-電子版(下旬)』 2015年 11期.
- 向成國, 『沈從文研究』 第1輯, 長沙: 湖南大學出版社, 1988.
- 余愛春, 「女性: 生態的表證——沈從文創作的生態女性主義解讀」, 『教書育人』, 2007. 8.
- 백영길, 『현대의 중국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7.
- 고은미 외, 『여성문학의 이해』, 태학사, 2007.
- 김옥동, 『문학 생태를 위하여』, 민음사, 1998.
- 김화경, 『세계 속의 여성들』, 도원미디어, 2003.
- 동아시아고대학회 편, 『동아시아 여성신화』, 집문당, 2003.
-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지음, 손덕수·이난아 옮김,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2000.
- 에드워드 소자 저, 이무용 역,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997.
- 엘마뉴엘 레이노 지음, 김희정 옮김, 『강요된 침묵-억압과 폭력의 남성 지배문화』, 책갈피, 2001.
- 오토 프리드리히 불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 이거룡 외,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 한길사, 1999.
- 이경재, 『신화해석학』, 다산글방, 2002.
- 정순진, 『여성의 현실과 문학』, 푸른사상사, 2001.
- 정재서, 『이야기동양신화·중국편』, 황금부엉이, 2004.
- 조규익 정연정(편), 『한국생태문학 연구총서』, 학고방, 2011.
- 조세핀 도노번 지음, 김익두·이월영 역,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8.
- 천혜숙, 『민속학연구』, 안동대민속학연구소, 1991.
- 최병두, 『로컬의 문화지형』, 혜안, 2010.
- 켈빈S. 홀/ 버논J. 노비드 지음, 김형섭 옮김, 『융 심리학 입문』, 문예출판사, 2004.
- 강경구, 「湘西——沈從文 소설의 신화적 공간」, 『중국인문과학』 제36집, 2007.
- 안승웅, 「심종문 소설 속 여성형상의 두 가지 경향」, 『국제지역논총』 제4권 2호, 2007.
- 안승웅, 「여신의 탄생과 문학적 변용: 심종문 상서 배경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53호, 2010.

〈中文提要〉

本论文的意义在于从生态女性主义的角度去解读沈从文湘西文学世界。生态女性主义的核心观点发展为尝试寻求普遍存在于社会中的压抑女性与破坏自然之间的一种特殊关系，反对在父权制和二元式统治下的对女性与自然的压迫，倡导建立一种女性与男性，自然与人，人与人的平等和谐关系。沈从文一贯的文学世界基地都有着自然与女性。作者笔下的大自然是有神性，灵性，而女性是灌注了大自然精灵。沈从文虽然当时并不是生态女性主义者，但他对人类生存和未来关注，尤其是对女性的人生与命运给予了独到的关怀，表现出超前的眼光和鲜明的生态女性意识。在他作品中，作者于有意无意间体现了生态女性主义主张自然世界与女性主义精神结合的思想内涵。从生态女性主义角度去解读他的文学作品，可以深切感受作者所创造的自然和女性之间的关系。

他作品中所表现的那种对女性外表，品性等方面的表扬与爱慕之情是显而易见的。在他笔下，女性和自然就给成了血肉而展现那种优美，健康，自然，而又不悖乎人性的人生形式。沈从文文学作品的主要题材就是自然和女性。在此我们可以意识到在他创作中自觉地流露出了这种生态女性情怀。自然，女性的价值已经被资本主义和现代文明所他者化了。作者将这两者（女性，自然）连接起来，从而扩张他作品世界的外延。沈从文在湘西文学世界中将自然和女性天然地联系在一起。这告诉我们从生态女性主义的视角可以分析和探讨他的作品。这正是因为生态女性主义将自然和女性之间密切关系看成它理论基础的缘故。

關鍵詞：沈從文，女性，自然，生態女性主義，湘西，二元化

〈Abstract〉

An Research Ecofeminism Shown in Shen Congwen's Xiangxi Work.

Lee Hyeim

Shen Congwen upholds nature and appreciates women, making a very highly organic integration of man and nature. He criticizes the male chauvinism, and speaks for

ecological values of the sexual balance. Shen Congwen's female shape is an important means to express his unique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social life.

Key Words: Shen Congwen, Ecofeminism, ecology, feminism, nature, female

이 논문은 2016년 10월 10일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11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